

동일독일 시대의 개막 ⑤

사회·환경문제 어떻게 되나

“동일이 됐으니 이곳 환경도 좋아지겠조.” 베를린 남서쪽 1백여km 지점에 있는 소도시 비터펠트에 사는 주부 하이더 리히터(46)는 동·서독 통일에 대해 색다른 기대를 하고 있다.

동독 최대의 공해지역 가운데 하나인 비터펠트에 와 보면 동독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환경문제에 관한 한 얼마나 비계획적이었는가를 쉽사리 알 수 있다. 맑은 날에도 안개가 낀 듯 도시 전체가 뿌옇게 보이는 이곳에서는 주민 2명당 1명은 기관지염, 기침, 피부병 등 질병을 앓고 있으며 평균수명이 동독 전체보다 7살이나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터펠트에 비해서는 덜 심각하지만 환경문제는 공업지대를 중심으로 동독 거의 전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있다. 동독 정권이 쉽게 무너진 배경에는 동독의 열악한 환경에서 살다가 서독의 상대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본 동독인들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통일을 생각했다는 지적이 있다.

동독인들이 환경문제 해결에

통일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면 통일로 인해 당장 피부에 와닿는 가장 부정적인 측면은 실업문제이다. 정치적 통합보다 석달 앞서 지난 7월에

같은 동독인들 가운데서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한층 더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 8월 말 현재 동독 전체 실업자 36만여명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3.2%였다. 올해초(1월 말 현재) 남녀 실업자비율은 6.4대1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이 점차 그 차이가 좁아져 7월말에는 마침내 근소한 차이로 역전됐던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는 여성실업률은 남성에

처하기는 동독 인민군과 경찰 등 공무원도 마찬가지이다. 동독군은 전체 9만8천명 가운데 절반인 5만명 정도만 서독군에 편입되고 나머지는 실직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옛 동독군 소속 병사들 사이에는 심리적 갈등과 장래에 대한 불안이 팽배해 사기가 말이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통일=대독일의 출현으로 가장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5백

이 모습이 종종 눈에 띈다.

히틀러의 나치주의를 연상케 하는 극우민족주의의 대두로 유대인과 외국인에 대한 직접공격도 빈번한 것으로 전해진다. 통일의 시각인 지난 3일 0시를 전후해서도 베를린의 외국인 거주지역인 크로이츠베르크에서 극우파 청년들과 외국인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져 경찰이 개입해 해산시키는 등 곳곳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있었다.

알려졌다.

또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동독인 가운데 3분의1이 자의에 의해서든 강요에 의해서든 친척과 동료들에 관한 정보를 슈타지에 제공했으며, 그 결과 슈타지에는 사실상 거의 전국민에 관한 정보문서가 보관돼 있다. 이 때문에 지난달 14일 드 메지예르 수상이 그 직무를 박탈하기 전까지 슈타지 해체업무를 관장했던 페터 미하엘 디스텔 전 동독 내무장관은 “문서가 공개될 경우 내전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문제의 이 문서를 서독 정부가 보관하겠다고 나서자 논란은 확대됐다. 과거 슈타지의 우선적인 감시대상이었던 동독 시민운동 회원들은 그렇지 않아도 대국민 정보망이 발달해 있는 서독 정부의 손에 이 문서가 들어갈 경우 슈타지 정보원 출신 동독인들의 취업기회가 박탈되는 등 장기적으로 서독 정부가 동독인들을 장악하는 데에 이 문서가 악용될 것을 우려해 수백명이 단식농성을 벌이는 등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결국 지난달 말 디스텔과 쇼이블레 서독 내무장관이 문서를 동독지역에 보관해 두기로 최종합의함으로써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슈타지 문서는 언제고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할 수 있는 내연의 화약고인 셈이다.

〈베를린=최재봉 특파원〉

취업난 가중...여성·외국인 희생 계속될듯

동독지역 심각한 공해문제 해결엔 낙관론도 ‘슈타지 문서’ 악용땐 동독인들 감정 폭발 우려

단행된 동·서독 경제·사회통합으로 서독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많은 동독 기업들은 도산하거나 아니면 서독 합작선과 손을 잡는 것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동독인 노동자들의 실업사태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4일 발표된 9월 말 현재 동독 실업자수는 44만4천8백명으로 8월말에 비해 다시 5% 늘었다.

비해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동독의 여성운동가들은 궁극적으로 동독 여성의 40~50%가 직업을 잃고 전업주부로 바뀌어 자본주의 가부장제가 재도입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성운동진영은 가장 격렬한 통일반대세력의 하나이다.

통일로 인해 실직의 위협에

만으로 추산되는 독일내 외국인들이다. 통일과 함께 과거 동·서독 모두에서 인종주의 및 극우민족주의의 대두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통일로 인한 실직사태로 취업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일차적인 실직대상자에 끼이기 일쑤이다. 특히 최근 동독지역에서는 통일과 더불어 해고돼 거리의 행상으로 나선 베트남인들

동독 사회주의체제를 지하에서 떠받쳐온 비밀경찰(슈타지) 문제는 자칫 독일 전역을 내전에 맞먹는 소용돌이로 몰고갈 수 있는 화약고로 취급되고 있다. 전성기에는 8만5천5백명의 요원과 50만명 이상의 유급정보원을 고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믿어지는 슈타지는 전체 인구의 3분의1인 5백만명 이상의 신상명세서를 작성해 놓은 것으로